

문예학 방법론[1]

문예학 방법론?

- 문학작품을 연구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
(문학작품을 분석하는 이론적 기반 제공)
- 대상(문학작품, 문학사 현상 등)을 연구할 때 특정한 인식과 이해와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
- 방법론에 따라 적용 대상, 분석 도구로 사용되는 개념(특정 용어), 인식 목표,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내용 다름
- 견실한 이론적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성찰 필요
- 문학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

독일 문예학 방법론의 변천

- 1810 베를린대학 독어독문학과 신설
- 실증주의 (1871~1900)
 - 실증주의적 연구방법론
: 자연과학의 객관성, 치밀성, 정확성 → 작품 발굴, 수집, 분류, 정리
 - 괴테 서고 Goethe-Archiv → '바이마르판 괴테 전집'
 - <한계> 자료의 기계적 수집, 무비판적, 해석 시도 X
- 반실증주의 (20C 초~1945)
 - 1) 정신사적 연구방법론
: 자연과학 ≠ 정신과학 → 내용의 '이해'가 중요 (설명 X)
 - 2) 형태론적 연구방법론
: 자료를 기준에 따라 엄격히 분류 → 장르개념, 시대개념
 - 3) 신낭만주의적-민족주의적 연구방법론
 - 낭만주의에 경도, 민족주의적, 게르만족 승화, 아리안족의 우월성
이상적 인물 연구 → 민족정체성 확립
 - '민족주의적 주도 학문', '민족학적/종족학적 문학사'

- 1945년 이후
 - 탈정치화 (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배제)
 - 작품내재적 연구방법론
- 1950년대
 - 다양한 방법론
 - 정신사적 연구방법론, 해석학적 연구방법론, 형식분석적 연구방법론
- 1960년대 중반 이후
 - 수용사와 수용미학 (1965~)
 - 사회사적 문학연구 (1965~)
 - 구조주의, 후기구조주의, 해체론 (1965~)
 - 정신분석학적 문예학 (1970년대 후반~)
 - 담론분석 (1980년대 초~)
 - 체계이론적 문학연구 (90년대 초~)
 - 문화 연구/문화학적 연구 (90년대 말~)
 - 젠더연구/젠더학 (90년대 말~)
 - 신역사주의 (90년대 말~)

1. 실증주의적 연구방법 (1871~1900)

- 빌헬름 쉐러
- 문헌학적 활동
: 인과성 원리 → 정리, 배열, 출판, 설명
- 작가의 전기, 서지사, 작품의 생성사(출전), 문학적 전범과 영향관계, 모티브 연구 등
- 한계
 - 기술적, 백과사전적 나열, 포괄적 연결 원칙 결여 (해석 X)
 - 문학의 미적 측면 소홀

2. 정신사적 연구방법 (20C 초)

- 빌헬름 딜타이
-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작품에 접근하는 적절한 방식
= 설명이 아니라 '**이해**' → 텍스트 해석 (**해석학**)
※ 고전문헌학, 신학의 성경 주석, 법률 해석
- '**해석학적 순환**' " 이해는 해석학적 순환 속에서 움직인다."
 - 부분-전체 / 특수성-역사성의 유기적 관계
 - 문학텍스트(개체)를 역사적 맥락(전체) 속에서 이해
- **시대정신**의 재구성 → 시대정신을 작품 속에서 증명

■ 연구 방향

1) 이념사적, 문제사적 연구

예) <괴테시대의 정신>, <하만과 계몽주의>

2) 양식사적, 양식유형학적 연구

예) <예술의 상호해명>, <독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혹은 완성과 무한성> (※ 뵐플린 『미술사의 기본 개념』 (1915))

3) 역사의 원인과 영향 연구 ('힘의 역사')

예) <니체, 신화학 시론>

■ 한계

- 예술적 형상 등한시
- '천재적인 작품과 동등한 자격'의 해석자 전제 (직관적 감정이입)
- 고급 문학이 연구대상 (엘리트 의식)
- 사변적 공허함

3. 작품내재적 연구방법 (1945년~1960년대 중반)

- 에밀 슈타이거, 볼프강 카이저

- 텍스트 연구

- : 사회비판적 역할 포기, 문학예술작품 자체만 지향

- 문학사가가 관심을 두는 것은 언어 그 자체

- 사회나 정치적 상황, 시대적/문화적 맥락이 아님 (슈타이거)

- 문예학의 중심 대상 = 문자 예술작품으로서의 문학 (카이저)

- 형식미학적

- : 예술적 형상화에 기여하는 형식적 요소 파악

- (구성, 음조, 리듬, 어휘, 문장, 비유, 상징, 사건, 모티브, 관점, 서술방식 등)

■ '꼼꼼히 읽기'

■ 한계

- 내용적 측면의 해석 부족
- 작품이 역사적인 생성 맥락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됨
- 문학 외적인 콘텍스트 배제 (작품 속 사회적 문제 등)
- 작품 선정의 문제 (감동을 주지 못하는 작품은 연구 대상 X)
➔ 예) 통속문학 제외
- 형식 > 내용 (통일적 문체가 작품의 질 결정)

4. 수용미학 (1960년대 말)

-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, 볼프강 이저

- 독자에 의한 문학 수용사

- [야우스]

- 독자/수용자의 능동적 참여가 작품의 생명 결정
: 독자는 자신 or 자신의 시대의 '**기대지평**'에 의해 텍스트 평가
(이미 인정받은 미학적, 도덕적 규범이 척도)
- 독자는 문학작품을 동적으로 경험 (이해지평의 끊임없는 변화)
: 작품 - 독자 - 새로운 작품 → 새로운 경험 → 기대지평의 변화 → 문학
규범의 변화 → **기대지평의 재구성** & 새로운 문학사
- <한계> 기대지평의 재구성을 위해 참조해야 하는 자료의 양 방대
문학 내적인 요소에 지나치게 주목, 문학의 사회적 맥락 간과

- [이저]

- '텍스트의 빈자리'는 독자가 채우는 것
: 독자는 텍스트가 생략한 부분을 상상력을 발휘해 자신의 상황에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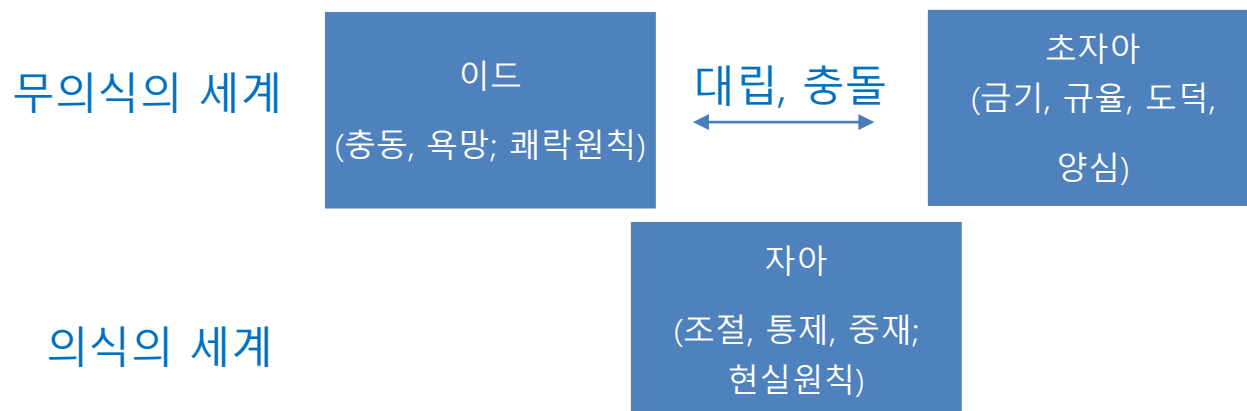
5. 정신분석학적 문예학 (1970년대 후반)

■ 라캉

■ 꿈의 해석 ≡ 텍스트 해석

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개념 (『꿈의 해석』, 『자아와 이드』)

- 꿈 - 무의식 - 욕망
- 꿈의 작업/검열: '응축', '치환', 대리표상 통해 잠재된 내용이 꿈으로 현현
- 마음의 구조: '이드 Das Es', '자아 Das Ich', '초자아 Das Über-Ich'
- '리비도 Libido' = 성적 충동
- '오이디푸스 콤플렉스' 예) <햄릿> 해석



■ [라캉]

- 무의식도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음
- 어린아이는 언어적 질서(사회; **상징계**)로 진입하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극복
- 어머니에 대한 욕망 →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
→ 문학텍스트 = 언어로 표현된 욕망
- 의미 고정 X (**'환유'**, **'은유'**)

6. 기호학 (문학 기호학)

- 위르겐 링크
- 기호체계로서 문학 연구
- 소쉬르 '이원적 기호모델 ('기표', '기의')'에 바탕
- 다의성, 동음이의어, 동의어, 명시적 의미, 내포적 의미
- 문학적 텍스트의 특징 (= 문학성)
 - 1) 자기지시성
 - 2) 일상어로부터의 이탈
 - 3) 내포적 의미가 지배적
 - 4) 상징성

7. 형식주의

- 슈클로프스키, 티니야노프
- 문학텍스트의 자율성
- 새로운 형식의 발생/문학의 진화 (혁신, 낯설게 하기)
 - 전통적 표현 방식을 어떻게 개조? 어떤 방식으로 서술?
- 문학진화론 (티니야노프)
 - 문학의 발전 = 자동화와 탈자동화의 끊임없는 상호작용
- <한계>
 - 문학의 발전 과정 기계적으로 이해
 - 문학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조건 무시
 - 특정 사회에 다양한 장르와 양식이 공존하는 현상 설명 x

8. (체코) 구조주의

- 무카로프스키

- ※ 언어의 6가지 기능 (로만 야콥슨)

: 시적 기능(언어 자체), 감정표현 기능, 호출 기능(청자), 메타언어 기능(약호), 접속/유지 기능(소통매체), 지시적 기능(관련 상황)

- 문학텍스트의 자율성

: 시적 기능이 지배적 역할 → 표현 중시

- 문학텍스트의 '**미적 가치**'의 원천

= 텍스트의 다면성, **다의성 (의미 잠재력)**

- 높은 가치를 갖는 작품은 새로운 맥락, 가치체계 속에서 새롭게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 갖고 있음 → 예술작품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

- 작품과 사회적 콘텍스트 사이의 연관성 (지시관계 X)

9. 후기구조주의

■ 움베르토 에코, 롤랑 바르트

■ [에코]

- 의미 있는 작품일수록 더 다의적, 다양한 해석 가능성
- 개인약호/개인어 (직접적 의미 → 함축적 의미)
- 자유로운 독서 - 텍스트 구조 사이의 상호관계
: '**사용**' (무비판적인 독자의 독서) ≠ '**해석**' (비판적 독자의 독서)
- 백과사전적 능력 (해석을 위한 독자의 예비지식)

■ [바르트]

- '일상의 신화' (이데올로기 비판)
- 기표의 '놀이'
: 글 읽기의 본질 = 욕망과 쾌락 ← 원천: 다의성
(특수한 것, 정의 내릴 수 없는 것, 개념에 포착되지 않는 것 등에서 느껴지는 즐거움)

10. 해체주의

- 자크 데리다, 폴 드 만, 제프리 하트만
- 구조주의 계승 & 발전적 파괴
- [데리다]
 - 기존의 고정된 의미 기반 파괴 (**다의성**)
 - '**차연 différence**' (차이+연기) & **반복가능성**
 - : 의미는 계속 연기되기만 할 뿐, 지금 여기에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X
 - 반복 = 단어의 동일성을 파괴하는 무한한 의미 연기 (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매번 다른 의미)
- 폴 드 만
 - 미국 예일대학파
 - 문학텍스트는 상반된 해석을 동시에 허용 (모순된 의미)

11. 마르크스주의 문학이론

- 프란츠 메링, 게오르크 루카치, 발터 벤야민
- 마르크스 이론 바탕 (『자본론』)
 - ▶ 하부구조(경제적 토대: 물질, 생산력/노동자의 생산성, 생산관계/계급관계)가
 - ↓
 - ▶ 상부구조(정신: 정치, 법률, 문화 등) 규정
- ➔ 사회적 존재가 의식 결정
- **반영이론** (예술 – 현실), 당파성
예) 표현주의 논쟁 (루카치 ↔ 에른스트 블로흐)
- 사회주의 리얼리즘
- 작가는 프롤레타리아 연대 & 정신적 생산수단 사회화 (벤야민)